





7일 Market Index			
	코스피 5494.78 (+44.45)		코스닥 1036.73 (-10.64)
	금리 (연이자율) 3.451 (+0.019)		환율 (원/달러) 1502.80 (-3.50)



삼성전자, 영업이익 57조 755% 성장, 시장도 깜짝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가 1분기에 국내 기업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다시 쓰며 반도체업황 호조세를 입증했다. 메모리 사업이 전사 실적을 끌어올린 반면 완제품 사업은 상대적으로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7일 2026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연결 기준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8.1%, 755.0% 증가한 수치다.

이번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치였던 38조1166억원보다 50.1% 많았고, 매출 역시 예상치인 117조1336억 원을 13.5% 웃돌았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영업이익은 185.0% 급증했다. <관련기사 3면>

매출 133조 전년 대비 68% 상승
4분기부터 2개분기 연속 최대기록
HBM3E·HBM4 확대 효과 반영
영업익 50조 'DS 부문' 일등공신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다. 삼성전자가 분기 기준 매출 100조 원과 영업이익 50조 원을 동시에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영업이익은 지난해 한해 영업이익 43조6011억 원을 1분기 만에 넘어선 규모다.

실적은 반도체(DS) 부문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DS 부문에서 만 5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와 범용 D램·낸드 가격 급등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HBM3E 공급에 이어 올해 HBM4 양산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1분기 실적에

HBM3E와 HBM4 공급 확대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적을 단순 일회성 호조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HBM과 범용 메모리 가격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DS 부문의 이익 레버리지가 극대화된 분기"라며 "AI 서버 투자 확대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메모리 중심 실적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해외투자은행(IB)인 씨티 역시 메모리 가격 강세와 AI 서버 투자 확대를 근거로 추가 실적 개선 가능성에 주목했다.

반면 완제품(세트)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사업부는 전년 동기 4조30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2조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영상디스플레이(VD)·생활가전(DA) 사업부는 전분기 적자에서 소폭 개선됐지만 적자 또는 소규모 흑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조 원, 전장 사업을 맡고 있는 하만은 2000억~30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실적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실적 구조가 다시 메모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I 수요가 HBM을 넘어 범용 메모리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능력을 갖춘 삼성전자의 규모 경쟁력이 실적에 직접 반영됐다는 평가다.

한편,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된 수치로,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 편의를 위해 제

공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니다”

여야 대표 만난 **李 대통령**
李, 국민의힘에 ‘개헌동참’ 요청
장 “개헌 논의 전 연임거부 하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동발 경제 위기 우려 속에서 7일 만났다. 지난해 9월 오찬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두고 “포퓰리즘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개헌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라”고 말

하는 등 민감한 대화도 오갔다. 다만 장 대표가 추경안과 관련해 요구한 내용이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일부 수용하는 모습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동 전 청와대 본관 내 계단 앞에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자리한 정 대표와 장 대표에게 “두 분이 요즘도 손 안 잡고 그러는 것 아니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하며 양 대표의 손을 가져다 맞잡게 하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갠다.

이후 참석자들은 행사장 내 원탁에 둘러앉아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회동을 시작했다. 사진 촬영 때는 화기에애했지만, 모두발

언에는 의견 차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마땅치 않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제한해 주시면 저희가 진지하게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

김보민·박경수 인턴기자 syj@metro



트럼프 “합의 불발 시 모든 교량·발전소 파괴”

韓시간 오늘 오전 9시 ‘합의시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 강조
이스라엘, 이란·레바논 독자 공격

중동전쟁 6주차 진입을 앞두고 전 세계는 다시 백악관발 언사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대 이란 동맹전선에 가담 중인 이스라엘의 경우 휴전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지속 중이다. 미군과는 별도로, 이란 및 레바논 등에 대한 독자적 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간 전쟁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다. 이에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의중과 관계없이 페르시아만 집결 병력의 철수를 결정

할지도 관건이다. 아팰든 백악관이 추가로 연장에 설정한 시한이 도래했다. 미 동부 시간으로 7일 오후 8시 (한국 8일 오전 9시)다.

트럼프 대통령(사진)은 워싱턴 D.C.에서 6일 오후 1시(서울 7일 오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그들에게 7일 오후 8시까지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이때까지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내일(워싱턴 7일) 자정까지(4시간 동안) 이란의 모든 교량이 전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란의 모든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불타고 폭발해,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나라 전체를 하룻밤 사이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 밤은 바로 내일 밤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 일부는 우리가 석유를 비롯해 그 밖의 모든 것들의 자유 이동을 원한다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합의의 선결 조건임을 강조했다. 선박 통행을 막지 말고, 만약 기회를 부선했다면 즉시 모두 제거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란 측 반응도 바로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담 알안비아이란중앙군사본부대변인은 “박다른 골목에 갇혀 미군의 연이은 패배를 정당화하려는 망상에 사로잡힌 미국 대통령의 무례하고 오만한 수사”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김부겸 “홍준표, 저 때문에 곤욕 죄송…대구, 새 활력 만들 인물 필요” /사진 뉴시스
▲유영하, 컷오프 주호영 무소속 출마 만류…“보수 재건 위해 희생 필요”

▲손혜원 전 국회의원, 목포시의원 출마 선언…“민주당 텃밭” 정면 도전
▲이준석 생방송서 ‘하버드’ 졸업 인증…“전한길 선처 없다”

▲창원시장 선거 5파전 확대…국힘 공천 탈락 후보들 탈당 후 출마
▲“박원순 시즌2 향해 가는 오만, 권력 집착만 있어”…오세훈, 여권 주자 비판